

# 반짝 추위 '신바람' 백화점

## 의류·난방제품 수요 급증...매출 20~30% 상승

때 이른 추위가 찾아오면서 지역 백화점에는 활기가 돌고 있다. 올 겨울 광주·전남지역은 평년보다 추운 날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상 전망으로 겨울 옷을 장만하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백화점업계 따르면 백화점 3사의 11월 매출이 급증했다. 지난달까지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무르는 등 올해 전반적으로 매출 성적이 저조했지만 이달 들어 두자릿수 매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소비심리가 회복됐다가 보다는 '반짝 추위'로 인해 단가가 높은 겨울용품을 찾는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데다 백화점들이 이달 초 진행한 개점 기념 할인행사 등이 매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 1~24일까지 백화점 전체 매출이 약 25%나 증가했다. 특히 추운 날씨 덕에 패

딩점퍼가 잘 팔리면서 아웃도어와 스포츠 부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60%, 33%나 증가했다.

또 그동안 매출이 부진했던 의류 상품군도 코트, 점퍼, 모피 등이 잘 팔리면서 여성의류 30%, 남성의류 40%, 아동·유아 의류 33% 등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스카프(약 36%), 장갑(약 29%), 레깅스(약 64%) 등의 매출이 늘면서 패션잡화 전체 상품군 매출이 24%나 증가했고, 구두 상품군도 단가가 높은 부츠 매출에 힘입어 17% 상승했다.

추고 건조한 날씨 영향으로 화장품 매출도 큰 폭으로 늘었다. 수분크림과 립밤 등 보습관련 화장품들의 판매량이 브랜드별로 15~20% 가량 증가했다.

따뜻하게 겨울을 나기 위한 수요가 늘면서 난방용품도 많이 팔리고 있다. 가전 매장에서는 전기요·전기장

판·온수매트의 매출이 12~15% 가량 늘었고 히터·스토브 등도 약 10% 증가했다.

광주신세계 백화점도 이달 들어 의류와 식품·생활 부문 매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패딩점퍼 등 기능성 겨울용 의류가 높은 인기를 끌면서 스포츠·아웃도어 상품군 매출이 35%나 급증했으며, 여성의류와 남성의류도 겨울용 장갑, 코트, 모피 등이 잘 팔리면서 매출이 11%씩 증가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날씨가 일찍 추워지면서 겨울용품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며 "4분기는 백화점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매출 확대를 위해 물량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중이인형과 "메리 크리스마스~"

25일 (주)광주신세계 1층 광장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페이퍼 토이 전시체험전'을 찾은 고객들이 크리스마스 관련 종이 인형을 살펴보고 있다. <주)광주신세계 제공>

# KDI "내년 경제성장률 3%"

## 정부 전망과 1%포인트 차 금리 인하·추경 편성 권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정부의 전망치인 4.0%와는 1.0%포인트나 차이가 있다.

내년에 총지출 확대를 포함한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금리 추가 인하로 경기 부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KDI는 25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2%, 3.0%로 내놨다.

지난 9월에 밝힌 2.5%, 3.4%에서 각각 0.3%포인트, 0.4%포인트 낮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을 3.6%, 국회 예산정책처는 3.5%로 본 것을 비롯해 대부분 국내외 기관들이 3%대로 예상하고 있어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

망을 수정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KDI는 내년에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를 바탕으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교역조건 안정과 원화 가치 상승 등으로 내수도 개선 추세가 이어진다고 봤다.

상반기엔 유로존 위기 등 불확실성이 이어져 2.2%의 비교적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다 하반기엔 개선 추세가

확대돼 성장률이 3.7%로 오를 것으로 봤다. 전년 동기 대비로 상반기에 큰 차이가 나지만 전기 대비로 보면 하반기에 소폭 개선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국제 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100달러 내외를 기록하고,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 가치가 연평균 7% 내외로 오른다는 게 내년 전망의 전제다. /연합뉴스

# "광양·나주·순천 대형마트 영업제한 말라"

## 광주지법 "지자체, 조례 일부 적용"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대형마트 5개사가 광양시장, 순천시장, 나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에 처분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취소하고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의무휴업 시행의 근거가 된 조례는 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 등에 영업시간 제한

과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를 의무적으로 명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보장하는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재 재판부는 "자치단체장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대형마트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번 조례로 대형마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조례를 일방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형마트들은 광양시와 순천시, 나주시가 지난 5월과 6월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를 개정해 통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자치단체는 조례를 재개정해 공포할 방침이다.

대형마트 5곳, 기업형슈퍼마켓 14곳이 영업하는 등 전남 22개 시군 중 대기업 유통업체가 가장 많이 진출한 지역으로 꼽히는 순천의 경우 이달 말까지 대형마트 등 관련업체 의견 수렴을 거쳐 재개정된 조례를 12월 중에 공포할 예정이다.

순천의 경우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 평일·휴일 상관없이 대형마트 자율 휴무를 실시 중이기에 이번 판결로 인한 대형마트 영업 재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순천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광주 지역 5개 자치단체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에 대한 조례를 개정했다가 패소하자 재개정해 공포했으며,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고 현재 반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하 없다

손해보험사들이 경기 침체와 자연재해 피해, 카드 수수료를 인상에 따른 경영 악화로 인해 자동차보험료를 추가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들은 대내외 압력 속에 내달 보험료 추가 인하 가능성을 고

심했으나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를 급등으로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해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2012회계연도 들어 9월까지 손보업계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80.2%로 적정 손해율 77%를 웃돌았으며 자동차보험 부문 영업 적자만 263억원에 달한다.

/연합뉴스

## 주간 증시 포커스

# 1940선 반등 가능성...IT·내수주 유효

코스피가 1900포인트를 넘어섰다. 대외적으로 여전히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미국의 연말 쇼핑시즌에 대한 기대감과 유럽 리스크 완화 무드 등이 투자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현재 시장이 걱정하는 핵심은 ECB의 무제한 국제매입과 미연준의 3차 양적완화가 발표된 이후 정책적 측면에서는 나올 만한 재료들이 모두 나왔다. 신진국 중앙은행들이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비해 변신을 시도했는데 이에 대한 효과도 궁금한 것이다.

결국 지수의 의미 있는 레벨업을 위해서는 각종 부양책의 실효성, 즉 펀더멘탈 측면의 개선세가 확인될 필요가 있다. KOSPI시장의 경우에도 1,940선 전후까지의 추가 반등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IT섹터에 대한 관심이 이번 주에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경기흐름과 무관하게 소비패턴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들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터치패널, 디바이스 부품, 비메모리 반도체,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게 하는 컨텐츠 분야까지 최근 빠른 속도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향후에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전자상거래 및 결제 시장의 빠른 성장세와 함께 모바일 게임산업이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나타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달러 환율이 1080원선까지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지만, 향후에도 방향성보다는 속도조절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 내수소비재·의류, 제약·바이오, 유통 등의 주가 움직임에도 꾸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들 내수주 중에서 중국 소비모멘텀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의 경우 여전히 주목해야 한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탈북미녀와 함께하는 감동베라이어티쇼!

이제 만나러 갑니다

CHANNEL A 매주 일요일 밤 11시

|                               |                      |                   |           |
|-------------------------------|----------------------|-------------------|-----------|
|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 스카이라이프 13 |
|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 해남 영암 진도 장흥 16    | IPTV 18   |

CHANNEL A www.ichannelA.com 채널A